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주 임 신 부	정 재 준 사도요한
	보좌 신 부	정 혁 요셉 (청년부)
		이 춘 섭 미카엘 (유·초·중·고등부)
		박 경 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정 은 자 한나 (원장)
		정 선 아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정 정 아 소화데레사 (유·초등부)
	꿀벌 유치원	최 향 숙 베로니카 수녀
	요셉어린이집	김 아 람 소화데레사 수녀
	총 회 장	황 태 영 프란치스코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안내

추석 미사 시간 (9월 10일, 토)	아침 06:30, 낮 12:00
-------------------------	-------------------

-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9월 8일(목)까지 반드시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낮 12시 미사 후 음식 나눔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없습니다.
- 토요일미사 및 어린이 미사는 모두 봉헌합니다.

● 알 림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10월 1일부터 보스코홀 장례식장을 재개합니다.
- 유아세례 및 태중의 아기 축복 일정 안내
 - 유아세례 : 첫째 토요일 오전 11시
 - 태중아기 축복 : 셋째 토요일 오전 11시
 - 접수 및 문의 : 본당 사무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 시 : 9월 3일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 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성모성심회	9월 3일(토), 20시	강 당
M.E.	9월 4일(일), 11시 50분	1교실
위령봉사회	9월 4일(일), 12시	강 당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9월 5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릴로 신부님

2022년 꿀벌 유치원 졸업생 모임

- 주 제 : 지구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 일 시 : 9월 3일(토) 8:30~13:00
- 장 소 : 꿀벌유치원
- 대 상 : 꿀벌유치원 졸업생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02)857-8545 8월29일(월)까지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향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7월 31일 현재 ₩10,030,000 납부되었습니다.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일(9/4)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10월 예정	청 소	18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8월 17일 ~ 8월 23일)

교 무 금		4,865,000원
주일헌금		4,43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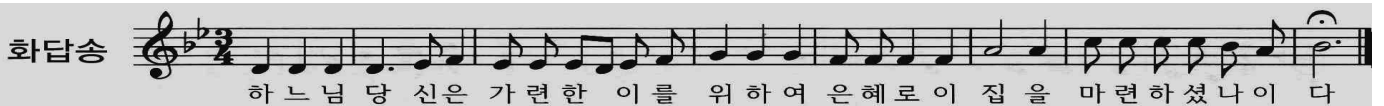
감사헌금	심진보15만원	김종순 5만원	양옥순 5만원
	영금선3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8/28	이영민	신종구 김진수	김덕영 김보금
9/4	손진희	심재순 장희석	윤상기 권태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8/28	최승일	박승환	장인홍 최석준	김인기
9/4	최창열	박용환	김영배 최승일	박승환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새로운 문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199.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서 도피하여 그들만의 작은 세상 속으로 숨어 버리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파괴적인 폭력으로 현실에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무관심과 폭력적인 저항, 이 둘 사이에는 언제나 가능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화입니다. 세대 간 대화, 우리 모두 국민이므로 국민 안에서의 대화, 진리에 늘 열려 있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역량. 국가는 그 다양한 문화적 풍요로움이 서로 건설적으로 대화할 때 성장합니다. 여기에는 대중문화, 대학 문화, 청년 문화, 예술 문화, 기술 문화, 경제 문화, 가정 문화, 매체 문화 등이 있습니다.”

200. 대화는 전혀 다른 어떤 것과 혼동되기 일쑤입니다. 곧 대부분 언제나 신뢰할 수만은 없는 매체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관계망의 열띤 의견 교환과 혼동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상의 의견 교환은 그저 동시다발적인 독백들일 뿐입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인 어조로 의견을 제시하면 다른 이들의 관심을 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백은 그 내용이 흔히 기회주의적이고 모순적일 정도로 다른 사람을 개의치 않습니다.

201. 매체 안에는 사실과 의견이 뒤섞여 소란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어서 실제로 대화의 가능성이 차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매체에서는 각자 다른 사람의 실수를 꼬투리 삼아 각자의 생각과 관심사와 선택을 가감 없이 그대로 고수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존중 어린 열린 대화로 더 나은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고자 하기는커녕,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퍼부으며 곧바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악습이 만연해 있습니다. 매우 나쁜 것은 정치 유세의 언론 보도에서나 통용되던 언어가 일반화되어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러한 언어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큰 권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논쟁이 조작되기 일쑤입니다. 저는 정부들만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정치, 매체, 종교, 기타 각종 세력이 그러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그러한 역학 관계가 경제나 이념의 측면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일치할 때에, 이러한 관행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이러한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역효과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202. 대화의 결여는 이 개별 분야들 안에서 어느 누구도 공동선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권력의 특혜를 누리거나 기껏해야 자신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데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로써 회담은 공동선 창출을 위한 공동 연구는 전혀 없이, 각자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가능한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단순 협상으로 축소되어 버릴 것입니다. 미래의 영웅들은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 병든 논리를 깨뜨릴 줄 알고 진리가 담긴 말을 결단력 있게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러한 영웅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 한가운데서 조용히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